

# “시골미술관은 주민들 삶에 녹아들어야죠”

개관 10주년 함평 잠월미술관 김광옥 관장



김광옥·임혜숙 부부.

2006년 경치에 반해 문 열어

특산품 판매전·한글교실 등

지역주민 교감 프로그램 호응

작가 40여명 30일까지 10주년展



함평 잠월미술관 '산내리 청춘학당'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 <잠월미술관 제공>

“세월이 참 빠르네요. 처음 시작할 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어느덧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 됐네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광옥(58) 함평 잠월미술관장은 개관 10주년 맞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대답했다.

12일 방문한 미술관은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자리잡으며 자연광을 이용한 밝은 공간 연출이 인상적이었다. 약 130㎡(40평) 규모 전시실 전장 중간에 지름 2m 크기 채광창을 설치해 조명을 켜지 않아도 관람에 무리가 없었다. 시골 미술관인 만큼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려는 김 관장의 의도가 엿보였다.

광주 경영고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김 관장은 마찬가지로 미술교사인 아내 임혜숙(55)씨와 지난 2006년 10월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잠월미술관 문을 열었다.

원래는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인근 화순에 미술관을 열 계획이었다. 대학친구였던 당시 이석형 군수가 함평으로 오라고 제안했고 경치가 좋은 산내리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

“이 전 군수가 ‘이제는 농촌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공감하던 부분이라 함평으로 왔죠.”

이후 전시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거나 특산품 판매전을 열어 참여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건 한글교실 ‘산내리 청춘학당’이었다. 미술관은 지난 2011년 KBS ‘인간극장-산내리로 간 미술관’을 찍을 당시 제작진은 마을 주민들이 글을 쓰는 모습을 제안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웃으며 “아이고, 우리 글 몰라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에 놀란 김 관장과 임 부관장은 마을회관, 정자 등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글을 알려줬다. 처음엔 제대로

버스도 탈 줄 몰랐던 주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모습은 지난 10년간 최고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외지인이 시골 삶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개관 2년만에 개최한 ‘우리마을 산내리’전이 마을 주민들과 친해진 계기가 됐죠. 당시 마을을 담은 사진, 그림을 비롯해 농산물까지 전시하며 미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이제는 모두 한가득처럼 대해주세요.”

또한 농사철이면 막걸리잔 전시를 열어 막걸리를 나누고 지난 2014년에는 청춘학당 학생 글을 모아 ‘산내리 할머니들의 첫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삶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는 취지였다.

장흥 출신 김 관장은 연진회 미술원 1기 졸업생으로 아산 조방원 화백을 6년간 사사했다. ‘자연이 스승이다’,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조 화백 가르침은 지금까지 미술관 운영과 교육신념으로 삼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라오스 최초 미술관인 ‘바람흔적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 미술관은 경남 남해에서 같은 이름의 미술관을 운영했던 최영호 관장이 설립했다. 최 관장과의 인연으로 전시를 열었던 김 관장은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미술 도구를 선물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미술 열정을 경험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개관 10주년은 그동안 거처간 전국 작가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관장이 직접 연락한 작가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작품을 보내온 사람도 있어 미술관 인기를 실감했다.

“앞으로 지역 할머니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펴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골미술관은 지역으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살아 온 삶 자체가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잠월미술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070-8872-67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고흥 남포미술관 기획전 ‘일신우일신’

내달 13일까지  
중견작가들 참여



▶권진용 작 ‘여수 밤바다’

고흥 남포미술관이 12월13일까지 기획전 ‘일신우일신’을 연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은 중국 고대 은나라 탕왕이 세수대에야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을 새겨놓은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행동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끊임없이 작품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권진용, 김일권, 박치호, 이현영, 장창익 작가가 참여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권진용 작가는 화폭 가득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색채와 대담한 터치, 과감한 여백이 인상적인 ‘여수 밤바다’ 시리즈를 전시한다. 김일권은 마치 일기를 쓰듯 하루하루 다른 경험과 감성을 추상적 이미지로 화폭에 담아낸다. 박치호 작가 작품 ‘Floating’은 치열한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현영 작가는 점묘법으로 풍경을 그린 ‘일출’을 출품하고 장창익 작가는 내면세계를 꽃에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최희원 작가 초대전 ‘산 속의 깊은 벼랑...’

내년 2월 12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최희원 작가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2017년 2월12일까지 ‘산 속의 깊은 벼랑...’ 기획초대전을 연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을 소재로 자연 본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목각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최씨는 주재료인 나무를 치밀하게 도려내기보다는 원래 형상에 맞춰 질감을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 ‘산지린 구-적야’는 나무조각 형태를 살려 계곡과 비탈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산지린 구-난산’에서는 기암괴석을 떠올리게 하는 현란한 무늬를 선보인다.

작가는 목재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며 각종 기계 시스템과 기술연마를 거쳤다. 이번 전시작은 목재 가공 기술과 열대지방 단단한 수입목재가 만나 강한 기운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최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산지린구-난산’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논문 ‘한국 근·현대 목조작품의 특성연구’ 등을 저술했다. 올해 ‘2016 조대미술 70년(조선대미술관), ‘느림의 미학’(무등산 국립공원)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잠월미술관 전경.



1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실.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b>EQUESTRIAN</b> 소노벨리체 승마클럽 주말 20%, 주중 40%	<b>YACHT</b> 가제 마리나 베이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b>GOLF</b> 비발디파크 대중골프(프렌즈)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주말 50%, 주중 무료	<b>SKI</b> 오산월드 및 아우라월드 주말, 승수기 주중 50% 리프트기 주중 무료	<b>OCEAN WORLD</b> 오산월드 및 아우라월드 주말, 승수기 주중 50% 리프트기 주중 무료	<b>RESORT</b>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대형 워터파크, 스키, 골프, 테니스, 수영장, 사우나, SPA, 카지노, 콘서트홀, 공연장, 레스토랑, 카페, 마사주, SPA, 헬스클럽, 어린이 놀이시설, 동물원, 사육사, 동물원, 사육사, 동물원, 사육사
---	--	--	--	--	--

문의: 062-222-0072 / 226-5800 (주) 대명리조트  
주요시설: 1000-900-697807 / 국민은행 614701-04-022581 /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